

# 4주 2020년 동계방학 묵상지

1월 4일 월요일	<말씀묵상>	시 61-63
<p>• 내용요약: 61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자의 신세에 처할 수 밖에 없었던 때를 배경으로 한다. 간결하면서 애절한 어조로 기도 응답에 대한 간청(1-2절), 하나님께 대한 강한 신뢰감 표현(3-4절), 서원(5절), 장래에 대한 소망과 보호에의 요청(6-7절), 찬양(8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2편은 다윗이 고난받는 동안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탄원시이다. 다윗이 고난받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의 지지하여(1-2절), 악한 자들의 대적을 탄원하고(3-4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5-8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9-12절). 63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며 부른 탄원시이다. 인간적으로 좌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p> <p>• 질문: 다윗은 마음이 놀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았다. 곤고할 때 당신에게 최고의 피난처가 되는 이는 누구인가? (61:1-4).</p> <p>• 생각하기: 기도와 찬양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복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성도의 귀한 특권이다(히11:6).</p>		

1월 7일 목요일	<말씀묵상>	시 70-72
<p>• 내용요약: 70편은 절망적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호소하는 다윗의 탄원시이다. 내용상 40:13-17절과 거의 일치한다. 본시에 자주 나타나는 '속히' 라는 말 속에 시인의 절박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처럼 힘든 상황 중에서도 한마디 불평이나 절망의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사모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다. 71편은 간구와 탄원이 반복되는 전반부(1-13절)와 앞선 분위기에서 일신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후반부(14-23)로 구성된다. 72편은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자신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평안과 번성함을 노래하며 더 나아가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영광스러움을 찬미한다.</p> <p>• 질문: 시편72편의 저자와 주된내용은?</p> <p>• 생각하기: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두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돌아보자(70:4절).</p>		

1월 10일 일요일	<말씀묵상>	시 82-84
<p>• 내용요약: 82편은 이 땅의 질서를 바로잡는 기준은 공의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다. 즉 공의는 세상의 창조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통치원리로서,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곳에는 사회가 혼란하고 부패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불의와 부패를 일삼는 자들에 대해</p>		

1월 5일 화요일	<말씀묵상>	시 64-66
<p>• 내용요약: 64편은 다윗이 대적자들의 조직적인 도전이 무르익을 무렵 지은 탄원시이다. 아마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주된 내용은 다른 탄원시와 마찬가지로 대적자들의 간계와 해악에 대한 고발(1-6절)과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호소이다(7-10절). 65편은 감사와 찬양의 시이다. 여기에도 기도응답으로 인한 감사(1-4절), 전쟁에서의 승리로 인한 감사(5-7절), 그리고 풍년으로 인한 감사(8-13절) 등이 나타난다. 우주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적, 물질적 축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다. 66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출된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노래하는 찬양시이다. 민족적 구원에 대해 노래하고(1-12절), 개인적으로 체험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한다.</p> <p>• 질문: 칼같이 날카로운 혀, 화살같이 독한 말, 비밀히 놓은 원수의 울무, 등 이런 극도의 위험과 고통에 처해 본 적이 있는가? 이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갔는가? 우리의 방법은 다윗이 보여준 방법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64:1-10절).</p> <p>• 생각하기: 시편이 감사의 조건이라니 놀랍지 않은가?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신앙의 체험이 있는가? (66:1-2절)</p>		

1월 8일 금요일	<말씀묵상>	시 76-78
<p>• 내용요약: 76편은 아삽 혹은 아삽후손이 지은 시이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 재위 시(B.C. 728-687) 하나님께서 파견한 사자에 의해 앗수르의 산헤립이 크게 패배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왕하19:14-37절). 시온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현(1-3절), 그 심령이 강포한 자를 심판하시며 유유했을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4-9절),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10-12절)등을 소개하고 있다. 77편의 표제어로 제시된 '여두둔'은 '약사가 지은 곡조에 준하여' 라는 뜻이다(대상16:41). 오랜 고통과 절망적인 현실로 인해 곤핍해진 시인이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고 힘을 다해 도움을 호소하는 간구의 시이다. 78편은 모세로부터 다윗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곳에서 발견되는 영적교훈을 노래로 표현한 시다.</p> <p>• 질문: 시편 77편에 표기된 '여두둔'의 뜻은 무엇인가?</p> <p>• 생각하기: 원수를 물리치고 원수의 압제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고 원수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76:4-9절).</p>		

<p>하나님께서서는 그 모든 책임을 물으실 것이며, 끝내 공의로 심판 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다. 83편은 '아삽의 시'로 명명된 시들 가운데 마지막 시이다. 본시의 배경은 여호사밧 왕 재위시(B.C. 872-847)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 남유다 왕국을 침공해 들어왔을 때(대하20:1-27절)로 추정된다. 민족적</p>		
--	--	--

이름: \_\_\_\_\_ 학번: \_\_\_\_\_

1월 6일 수요일	<말씀묵상>	시 67-69
<p>• 내용요약: 67편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이 열방의 구원으로 확장되기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선교의 노래'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구원찬양이 만방에서 울려 퍼지는 구원찬양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시는 이스라엘의 예언자적 역할을 강조하는 예언시이다. 68편은 이스라엘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른 찬양시이다. 주된 내용은 원수의 멸망으로 인한 기쁨(1-18절),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기쁨(19-27절), 복음의 궁극적 승리에 대한 예언적 선포(28-35절) 등이다. 69편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다윗의 말년의 탄원시로 그의 4번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시기에 지은 시이다. 극심한 고난과 불의한 핍박 중에서도 다윗은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와 소망을 호소한다.</p> <p>• 질문: 67편의 별칭은?</p> <p>• 생각하기: 고난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밖에 없음을 잊지 말자(마7:7-12절)</p>		

1월 9일 토요일	<말씀묵상>	시 79-81
<p>• 내용요약: 79편은 74편과 유사한 내용으로 B.C. 586년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에 기초하여 지은 시이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처참한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1-4절), 이스라엘을 원수의 악랄한 손아귀에서 구해내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사고 탄원하고 있다(5-13절). 80편의 표제어 '소산님 에돏'은 '증거의 백한화'라는 뜻을 지닌 음악용어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앗수르의 침공시점(B.C. 722)을 배경으로 한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능력으로 후원하시어 구원해 주시길 기원(1-3절)하고 이스라엘에 내재된 슬픔을 거두어 가소서 라는 기원(4-7절),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원(8-19절)으로 구성되어 있다. 81은 아삽의 시로 표제어 '깃땀'은 '기쁨곡조'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백성의 유월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민족적으로 큰 절기에 불러지도록 지어진 것이다.</p> <p>• 질문: 81편과 같은 '깃땀' 시는 언제 사용되었는가?</p> <p>• 생각하기: 참 성도는 자기의 유익과 명예가 손상된 것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안타까와 하는 자이다.</p>		

<p>으로 대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호소하는 담대한 신앙이 잘 드러져 있는 탄원시다. 84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던 한 제사장의 시로 거룩한 전을 사모하는 시인의 심경을 적고 있다.</p> <p>• 질문: 82편은 '공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p> <p>• 생각하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이나 환경을 보지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다.</p>		
--	--	--